

오피니언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윤방부



후텁지근한 장마철에 산뜻한 얘기가 훨씬 필요할 시기다. 하지만, 최근 한국 사회의 화두는 후텁지근한 장마철보다 더 찜통 같은 '죽림'이 아닐까 한다.

얼마 전 한 신인 여자 탤런트의 자살, 그 이전 잘나갔던 최고 탤런트의 자살, 조용한가 했더니 또 한번 세상을 경악하게 했던 전 대통령 자살, 그런가 했더니 존엄사에 대한 법적, 의학적, 윤리적 정의, 사회의 반응, 가족의 반응 특히 언론의 보도태도, 또 이렇게 지나가는 했더니 세계 최고의 갑 가수 마이클 잭슨의 미스터리 한 사망! 2009년 상반기에 각종 매스컴에 줄줄이 이어졌고 지금도 그 여파가, 그 여진이 아직도 꺼지지 않는 죽림이다.

'죽림(Death)'에 대한 정의는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철학, 전문분야, 인생관, 종교적, 가족관, 전통 등등에 따라 아주 다양하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숨 쉬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활동하던 인간이 모든 것이 정지된 상태라는 것이다. 따라서 죽음 후의 인간이 영혼이 떠돌아다니는 등 내세를 말하는 것은 종교에서는 가능하나 현실과 의학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사후가 아니라

사전(死前)에 주검에 대한 철학, 개인관 등을 어떻게 소유하느냐에 따라 아름다운 화두는 후텁지근한 장마철보다 더 찜통 같은 '죽림'이 아닐까 한다.

필자는 의사라는 직업상 보통 사람보다 비교적 많은 '죽림'을 봤다. 1970년대 미국 유학시절, 엘리자베스(리사)라는 50대 중반의 미국여자로 유방암 환자가 있었다. 폐에 물이 차서 들어왔는데 검사를 해보니 유방암 말기였다. 차마 환자에게 검사 결과를 말하지 못하고 있는데 검사 후 1주일째 환자가 묻는다.

"Doctor, 내 병의 진단은 꼭 알아야 되겠어요?" "물론 당연하죠." "네 검사결과 는 유방암이 퍼져서 폐에 물이 찹습니다." 표정이 바뀌더니 한참 있다가, "그러면 제 거두지 죽는 게 좋을까요?" "교과서적으로는 3개월, 그러나 하느님께서 모든 것

을 결정하시는 것 아시죠?" 그녀는 에티오피아에서 기독교 선교사로 20여 년째 일하던 중이었다. 아무 말이 없다. 매일 회진 시 Say Hi(안녕하세요) 하고 지나쳤는데 3일 후 입원실에 들어오 무언가 대화하고, 위로하고 싶어 들어갔더니 책상 위에서 열심히 무엇인가 쓰고 있었다.

"뭐하세요?" "편지 쓰고 있어요." "무슨 편지요?" "친구들에게 쓰고 있어요. 친구 많아요?" "네, 좀 있어요." "무슨 내용인데요?" "주요 사과의 용서편지를 쓰고 있어요. 나 때문에 조금이라도 마음의

있다고 표현해도 좋다. 최근 한 모임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다. 모임의 명칭이 '쓰죽회'인데 '쓰'고, '죽'자 모임이란 뜻이란다. 재산을 많이 모으진 못했지만 죽을 때 가져갈 것들도 아니니 다 쓰고 죽자는 취지라 했다. 조금은 다른 점이 있지만 '스테판 폴란'이란 미국 사람이 쓴, '다 쓰고 죽자'라는 책이 있다. 그 중에 다 쓰고 죽어라, 유산이 없으면 자식들이 다들 일도, 가산을 망질일 일도 없을 것이다 라는 구절이 있다. 돈 있는 사람을 한번쯤 생각해 볼 일이다. 다 쓰고 죽어야 할 것이 꼭 '돈'만은 아니다. 각자가 갖고 있는 소질, 철학, 마음, 정신, 신체 등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된다. 인간이 태어나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각자가 소유한 모든 것을 남김없이 쓰고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죽림관, 인생관이 아닐까?

다 쓰고 죽자! 그리고 병이 걸려 죽든, 또 온갖 이유로 죽든, 자살하던 그 마지막 단계에서 용서와, 사과, 화해가 갖든 그런 죽림! 그것이 진정한 죽림이 아닐까?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자살은 하지 말아야 한다. 자살은 최고의 죄악이고, 또 살인 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자의 묘비명에 "다 쓰고 죽었다 후회 없다" 라는 글귀를 남겨보자.

<가천의과학대학교 부총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 쓰고 죽자

상처가 있었다면 사과 드려요, 용서하세요. 물론 감사의 편지도 쓰고 있습니다.

결국, 그녀는 3개월 후 유명을 달리했다. 그러나 검진결과가 나온 후 유명을 달리할 때까지 엘리자베스는 그 병원에서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었다. 이와는 반대로 원한 등에 죽어가는 환자들, 가족의 갈 등 속에서, 촉박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환자들, 그 많은 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환자들! 온갖 이유로 자살한 사람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하지만 죽림은 인생의 한 단계라고 한다. 또한 누구든지 죽는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매일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매일 조금씩 죽고

기고

나도 팔



광주·전남 지역민들이 나주에 들어설 공동혁신도시에 거는 기대는 다른 지역과는 그 차원이 다르다.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광주와 전남이 힘을 합쳐 만드는 공동혁신도시로서, 공동발전을 견인하는 최대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부에서는 '혁신도시 건설이 애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18개 기관으로, 대부분이 미래전략산업과 연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린 에너지 산업분야이다. 남도의 짙은 영산강과 광주의 빛이 하나 되는 상생의 도시라는 이름의 '빛가람'혁신도시는 지난 2007년 11월 7일 공식 이름과 각종 보상을 마무리 짓고 현재 이주가 한창이다. 부지조성 공사도 전 구간이 착공되어 예정 공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도시건설도 저탄소 녹색성장 중심의

혁신도시건설 초심 잃지 말아야

지난해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혁신도시 재검토 논란이 빚어진 데 이어, 통제되는 이전 예정기관의 이전지역 확정이 지연되고 있는 등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에 대한 근간이 흔들리고 있어 애초 계획된 일정에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혁신도시 건설 근본취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에 분산·이전하여 이전 공공기관과 산학연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주거와 교육, 의료, 문화 등 수준 높은 정주환경을 갖춘 미래형 도시로 개발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는 통폐합 기관의 이전대상지를 조기에 확정해야 하며, 이전계획이 승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점검과 평가를 통하여 빨리 이행이 되도록 독려해줘야 병행해 주어야 한다.

우리 지역에 이전할 공공기관은 크게 한전 등 에너지, 한국농어촌공사 등 농생명, 한국전파진흥원 등 정보통신, 문화콘텐츠진흥원 등 문화예술 4개 분야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 빛가람 도시만의 특화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다른 혁신도시와 차별화된 도시공간이 조성되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방에서 아무리 몸부림을 치더라도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애초 목표한 명품도시를 만들어 내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게끔 혁신도시 건설에 필요한 SOC를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하며 양 시·도는 공동혁신도시인 만큼 상생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 이전기관의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기업하기 좋은 지역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 광주와 전남은 상생의 지혜를 모아 혁신도시 건설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의 모범적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정부에서도 처음에 먹은 마음처럼 초심을 잃지 않아야 애초 계획된 친환경, 명품 혁신도시가 조성될 것이다.

<전남도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폐교 위기의 농촌 분교, 경쟁력 찾아 '명품 학교'로

요즘도 농촌에서 학생 수가 적어 폐교 한다는 신문기사를 보면 마음이 아프다. 그런데 농촌이나 교육당국 모두 공감하고 배워야 하는 사례가 있어 두고두고.

강원도 양양군 서면에 있는 공수전분교가 폐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펼친 노력은 눈물겹다. 교직원들은 물론 주민들이 산촌 유망 희망 프로그램을 마련해 전국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섰다.

그 결과 수도권과 전라도 광주 지역에서 20명을 확보했다. 그래서 전교생이 26명으로 늘어나 폐교 위기를 모면했다는 것이다.

정말 교직원과 농민들의 눈물겨운 헌신은 전국 농촌의 교직원과 시·군 교육청, 정부 관계자들이 배워야 할 일이다.

수자가 안되면 무작정 폐교부터 시킬 게 아니라 그 학교가 특색화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파악해서 육성해주고, 그 마을 교직원과 농촌 주민들은 외부 학생들을 이끌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스스로 나서서 찾는다면 우리 농촌 학교가 사라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렇게 해서라도 더 이상 농촌 학교가 폐교 되는 것을 막자.

▲김성욱·목포시 대방동

의료 칼럼

김성훈



병원에서 치료중인 한민지(10)양은 사회성이 부족해 또래들과의 친구 관계가 좋지 않고 글씨를 거꾸로 읽거나 빠뜨리고 읽고 보고 베껴 쓰는 것도 힘들어하던 아이였다. 행동과 성격이 느리고 감정표현이 미숙하며 경쟁심도 없는 편이다. 이런 아이가 맞춤형 학습장에 치료를 받자 7개월 후에는 남의 이야기를 빨리 알아듣고 자기 할 일을 미루지 않으며 자기 표현을 잘하고 눈물도 흘릴 줄 아는 감성

정도로 공부를 못한다면 이는 언어를 관장하는 좌뇌의 기능이 약하거나 공부하는 과정을 터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를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은 난독증이며, 이는 증상이 매우 다양하므로 전문가에 맡겨 치료하는 게 좋다.

사람의 좌측 뇌는 언어와 논리, 우측 뇌는 직관과 공간지각능력을 담당한다. 그런데 학교에서의 학습과정과 평가는 좌뇌 위주로 이뤄져 있다. 난독증은 주

우리 아이도 난독증?

적인 아이로 변해갔다. 이런 글씨 쓰기도 많이 정확해졌고 책 읽는 속도가 빨라졌으며 반응속도도 개선됐다.

최근 듣기, 말하기, 읽기 등의 언어능력 향상을 통해 학습장애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많이 시도되고 있다.

1990년대 초반부터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에 대한 인식이 확산하면서 최근 보편화됐듯이 6년여 전부터는 구미를 중심으로 난독증(難讀症)을 고집으로써 학습장애와 대인관계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치료에 관심을 끌고 있다.

난독증이란 지능은 정상이지만 글씨를 읽거나 쓰고 산술 하고 동작으로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보이는 상태를 말한다. 문맹이어서거나 지능지수가 70 이하여서 학습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겪는 정신지체와는 다르다.

증상의 경중에 큰 차이가 있으나 통상 20%의 어린이에게서 나타나는 것으로 연구돼 있다. 지능에 문제가 없는데 말이 늦거나, 아버지는 변호사이고 어머니가 의사인데 자녀가 말바다에서 길

로 좌측 뇌의 발달이 미진하고 우측 뇌가 편중되게 발달한 아이에게서 나타난다.

이에 따라 난독증 어린이는 산만하기 쉽고 초등학교 입학 때부터 또래 아이보다 1~2년씩 학습성취도가 낮은 탓에 이것이 누적돼 평생 열등생으로 남을 우려가 있다.

하지만 무조건 걱정할 일은 아니다. 난독증의 원인은 언어적인 것(발음 철자 독해 등)과 비언어적인 것(시각 청각 뇌신경계의 기능 미흡)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에 적합한 맞춤치료를 해야 한다. 대다수 프로그램은 어린이가 모니터를 보면서 반응토록 훈련함으로써 난독증이 개선되도록 유도한다.

하지만 이처럼 두뇌의 신경학적 문제를 개선하지 않은 채 아이들에게 계속적으로 공부와 수업을 과제 그리고 시험 압박을 주면 학습능력과 학습동기가 현저히 떨어질뿐 아니라 학습도도 또 다른 정신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한방심정경신과학박사·한의원 대표원장>

양심 파는 '자격증 불법 대여' 스스로 삼가야

최근에 재취직이 안 돼 아르바이트 삼아서 막노동을 했었다. 그런데 지인으로부터 같이 일하는 노무사 관리인이 내가 건축공학과 출신이라는걸 알고는 자격증을 대여할 생각 없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임금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내가 용돈 몇 푼 벌어서 그런 짓을 했을 때 그 자격증을 빌려서 일을 한 사람이 지은 건물이 부실이 되면 그 안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이 재산상의 손실도 보고 자칫 귀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건 불법행위로 인한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양심의 문제였던 것이다. 내가 거절하자 학생들은 용돈도 필요하고, 학비도 부족해서 그런걸 잘 빌려준다면 다른 대학생을 알려 달라고 부탁 하는 게 아닌가. 업체들은 월 200만~400만원인 전문인력 대신 무자격자를 채용하면 월 100만원 이상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으니 그런 편법을 쓰는 모양이다. 자격증 불법 대여는 국가기술자격증의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전문 인력의 취업을 막는 등 문제를 일으킨다. 이런 행위는 정말 삼가야 한다.

▲이준영·광주시 서구 마복동

시설

기아차 '19년 연속파업' 이라니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조가 또다시 파업에 돌입했다. 비록 4시간의 부분파업이었으나 지난 1991년 이후 19년 연속 파업이라는 진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향후 급속노조의 '하루(夏露)일정과 연계되면서 총파업으로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걱정이다. 지역경제의 중추인 기아차 파업은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파업의 최대쟁점은 '주간연속 2교대제'다. 현행 '10시간+10시간' 방식의 주야교대로 바꾸는 것으로 노동은 1인당 하루 10시간에서 8시간으로, 공장가동은 하루 20시간에서 17시간으로 줄게 된다. 이럴 경우 현재의 시급제로는 실질임금이 20% 안팎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월급제 전환을 통해 임금감소폭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반면 사측은 주간 연속 2교대제를 도입할 경우 근무시간이 한달에 40시간 부족해지면서 연간 6만대의 감산이 불

가피해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워낙 노사 양측의 견해차가 팽팽해 언제든지 파업이라는 불상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기아차 노조의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이번 파업은 너무 이기적인 행태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물론 2교대제 시행으로 실질임금이 20% 줄어드는 것은 근로자들에게는 감수하기 힘들 것이다. 하지만 지금이 어느 때인가. 글로벌 위기로 내로라 하는 자동차 회사들이 줄줄이 도산하는 가 하면 100만 명에 가까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 위기에 처했다. 이런 판국에 회사의 어려움을 외면한채 근로시간 감축에 따른 임금손실을 보존해달라는 노조의 요구는 정말이지 해도 너무하다.

파업의 명분이 아무리 합리적이라 해도 지금의 때가 아니다. 기아차는 상생의 지혜를 발휘해 파업의 집진 고리에 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파업을 연례행사처럼 되풀이해야 되겠는가.

비정규직법 시행 대량해고부터 막아야

비정규직보호법 개정 협상이 끝내 결렬됐다. 이는 2년 전에 만들어진 법이 1일부터 시행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당장 실행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 전체 임금 근로자의 3분의 1에 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대량해고가 현실화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된대에는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 법을 만든 취지는 돌아보지 않고 법 시행을 유예하는 데만 정신이 팔려 제도적 미비점 보완과 기업들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는 다양한 정책 개발에 소홀해 오늘의 사태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정치권 논의와 상관없이 법 시행에 대비해 반반의 대책을 세워놓았어야 했다.

비정규직보호법은 이미 시행 중이다. 비록 한나라당이 2일 오후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했지만 정치권의 협상을 통한 타결까지는 결코 쉽지 않아 보인다. 정치권이 논란을 벌이는

동안 힘없는 비정규직만 거리에 내몰릴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당장 법 시행 유예를 둘러싼 논의보다는 발등의 불부터 끄는 데 나서야 한다. 기왕에 생긴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할 일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찾아 시행에 옮기도록 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있다. 일단 비정규직법을 시행해 본 뒤 정밀한 분석과 평가를 거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책을 찾는 것도 한 방법이다.

앞으로 비정규직 파업들이 하루하루 더 커질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정치권은 과도기 경과조치 차원에서 긴급처방마저 주저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의 협상은 눈앞에 닥친 불을 끄는 일에 그치지 말고 비정규직의 사용자, 사용자들의 제한, 정규직 전환의무비율 도입, 사회안전망 확보 문제 등에서 근원적 해결책을 찾는 데 집중돼야 한다.

無等鼓

향토기업인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요즘 안팎으로 어렵다. 지난 2006년 12월 편입한 대우건설 때문이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빚을 내 사들였다가 자금부족에 허덕인 끝에 팔기로 한 것이다. 2조원 이상의 손실을 내면서 재계 순위가 10위권 밖으로 밀려나는 큰 상처를 안게 됐다. 안으로는 형제 오너 중 한 명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화학부문만 떼어 내 분가하겠다는 압박 신호로 해석될 수 있는 지분 정리에 나서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기업 인수·합병에 성공했다가 더 큰 피해를 입고 물러난 사례는 흔하다. 한화그룹은 지난해 말 치열한 인수전쟁 끝에 대우조선해양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자금난을 겪으면서 포기했다. 두산그룹이나 유진그룹도 빚달을 성사시킨 후 계열사 매각 등 고강도 구조조정이라는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치열한 경쟁에서 이겼지만, 과도한 욕심 때문에 실제로는 손해를 보는 상황

황, 이른바 승자의 저주(Winner's Curse)에 시달리게 된 경우다. '승자의 저주'라는 표현은 미국 행동경제학자인 리처드 세일러가 지난 1992년 동명의 책을 출간한 이후 널리 쓰이게 됐다.

이 개념은 정치에도 적용할 수 있다. 진보 집권 10년 만에 보수 정권에 정권을 내준 것도 승자의 저주인 불려온 재앙이다. MB정권이 압도적인 표차로 정

권을 잡은 다음, '춧불'에 탄 것도 민심을 잃지 못해서다. 뒤늦게 서민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민심 물리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노사관계에서도 승자의 저주는 목격된다. 세계 제1의 자동차 메이커인 GM의 노조는 지난해 말 치열한 인수전쟁 끝에 대우조선해양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자금난을 겪으면서 포기했다. 두산그룹이나 유진그룹도 빚달을 성사시킨 후 계열사 매각 등 고강도 구조조정이라는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치열한 경쟁에서 이겼지만, 과도한 욕심 때문에 실제로는 손해를 보는 상황

/김주경 경제부장 jjnews@kwangju.co.kr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subscription rates, and advertising rates.